통권 12호
JULY 2026

1776 INSTITUTE Newsletter

1776연구소 정기소식지 | **발행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57, 1106호 (선유도역 8번 출구) **홈페이지** www.1776.or.kr **이메일** 1776institute@gmail.com

지난달 연구소 동정

6.3 정읍 선언 80주년 기념 학술대회



지난 6월 5일(금), 이승만 대통령의 정읍선언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 조평세 대표가 논찬자로 참여하였다. 이날 조평세 대표는 박명수 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의 발표 논문 「이승만의 정읍선언, 단독정부인가? 통일정부인가?」에 대해 논찬하며, 최근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과 이를 수용하려는 국내의 반헌법적 흐름을 비판하고, 한반도 자유문명 수호의 관점에서 정읍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기독교인의 전쟁관> 발표



지난 12일(금), 영락교회 5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월례회에서 조평세 대표가 '기독교인의 전쟁관'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대표는 '정의전쟁론(정당전쟁론)'은 전쟁을 미화하기 위한 이론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 속에서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고 악의 확산을 막기 위해 무력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기독교의 현실 윤리임을 설명하며,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추구하되, 악에 맞서는 도덕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서울 역사탐방: 광화문편



지난 16일(화), 자유역사포럼과 함께하는 '서울 역사탐방: 광화문편'이 진행되었다. 총 15명의 참가자가 함께한 이번 탐방에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방문해 왜곡된 역사 인식의 현실을 되짚어보고, 광화문광장의 '감사의 정원'을 둘러보며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과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식사를 함께하며 탐방 소감을 나누었고, 새문안교회 역사관에서는 대한민국 자유의 뿌리가 된 한국교회의 역사와 역할을 살펴보며 뜻깊은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황성준 위원 <6·25전쟁 특강 시리즈>



지난 18일과 25일(목), 황성준 자문위원이 두 차례에 걸쳐 '6·25전쟁 특강 시리즈'를 진행했다. 이번 특강에는 온·오프라인을 합쳐 약 25명이 참석했으며, 군사작전의 관점에서 6·25전쟁을 다루었다. 전략(Strategy), 전술(Tactics), 작전술(Operational Art)을 중심으로 전쟁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주요 전투와 작전 수행 과정을 깊이 있게 풀어내었다.

대표 인사말

알로하~!

대한민국의 산실, 하와이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청년이승만이 되기를 꿈꾸는 청년 40명을 데리고 6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2주간의 견미단 3기 일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하와이 일정을 마치고, 독립 250주년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미국 본토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후원자님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견미단은 1776연구소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우남과 미국을 제대로 아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다음세대를 살리는 길이고, 견미단은 가장 빠른 기간에 청년들에게 우남과 미국의 독립정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단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경비를 위해서 관심갖고 기도해주세요.

분명 바닥이 들어날 통장을 가지고 출국했는데,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후원해주셔서 경비가 출금되기 직전에 잔고가 채워지는 기적같은 일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가끔 자다가도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지지만, 아슬아슬하게 위기가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라고 두손들고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주시는 후원자님들께 참 감사합니다. 제헌절인 7월 17일, 견미단 홈커밍데이에 만나요!

조평세 드림

P.S. 견미단 1기 때부터 정한 "견미단원의 다짐"을 아래 올려드립니다.

하나. 나는 우남 이승만의 독립정신과 나라사랑을 닮아가는 '리틀이승만'이 될 것을 결심하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북한동포 해방과 자유통일의 소명을 이야기할 것이다.

둘. 나는 한국의 젊은 보수주의자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음을 명심하여, 항상 밝고 단정하며 진실한 태도로 서로를 대하고 존중할 것이다.

셋. 나는 기록하며 질문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견학에 임하여,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배운 것을 타인에게 전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것이다.

7월 연구소 동정

미 독립 250주년 기념 '2026견미단' 파견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2026 견미단'이 현재 미국 현지에서 역사 탐방을 진행하고 있다. 총 42명의 견미단원은 지난 6월 28일(일) 출국해 미국 건국의 주요 현장을 직접 탐방하며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주의의 뿌리를 배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고 있다. 특히 이번 견미단에서는 매일 QT(성경 묵상) 시간을 운영하며, 말씀을 통해 역사와 신앙을 함께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견미단은 오는 7월 11일(토)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여정을 통해 견미단원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 속에 담긴 섭리와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의 가치를 더욱 굳게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견미단 해단식 및 홈커밍 총회

7월 17일(금), '견미단 해단식 및 홈커밍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2026 견미단 3기뿐만 아니라 1·2기 견미단원들도 함께 참석해 서로의 여정을 나누고 교제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각자의 자리에서 '리틀 이승만'으로의 여정을 시작한 견미단원들이 소감을 나누고, 다음 세대로 함께 성장해 나갈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선유도역 사무실 개소 감사 예배

선유도역 인근으로 이전한 1776연구소 사무실에서 개소 감사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새롭게 조성된 1776라운지는 1,500여 권의 영문·국문 도서를 갖추어 연구와 교제의 공간으로 마련되었으며, 회원과 후원자들에게 개방된다. 개소 예배 자세한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주목할만한 뉴스 / 칼럼

[월간조선 특집/미국 독립선언 250주년] 미국의 건국 이념과 대한민국 - 조평세

"엄격히 말하자면, 자유의 역사는 1776년에 시작되었다. 인류는 그때까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 채 자유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올해 250주년(Semiquincentennial)을 맞는 1776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선언을 두고, 영국의 위대한 자유사가(自由史家) 액턴 경(Lord Acton)이 한 말이다. 사실 과장이 아니다. 250년 전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난 미국의 독립 혁명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자유민주공화국을 수립했고,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다름 아닌 그때 시작된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프랑스 혁명을…

광고

"1776연구소 정기후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1776연구소는 후원자 여러분께 더욱 체계적이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정기후원(CMS) 체계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다음세대에 '독립정신'을 심는 1776연구소의 사역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정기후원은 Friends(월 1만 원 이상), Fellows(월 3만 원 이상), Family(월 5만 원 이상) 세 단계로 운영되며, 후원 등급에 따라 웰컴팩 및 신규 굿즈, 먼슬리 세미나 및 특별 이벤트 초청, 1776라운지 이용, 1776아카데미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정기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QR코드를 통해 CMS 후원을 신청하신 후, 웰컴팩 및 후원자 혜택 발송을 위해 성함과 우편 수령 주소를 1776사무국(010-5949-1776)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대한민국 다음세대에 자유와 독립정신을 심는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후원 신청 QR

July, in the History of Liberty

7월 2일 (1776)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2차 대륙회의에서 13개 주 56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토마스 제퍼슨이 초안을 작성한 독립선언서를 채택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훗날 제2대 대통령이 될 존 애덤스는 아내 아비게일에게 보낸 편지에 "7월 2일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을 날이 될 것이며, 후대 사람들이 이날을 매년 거대한 축제와 불꽃놀이로 기념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7월 3일 (1775) 독립전쟁 중 조지 워싱턴이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서 대륙군 사령관으로 취임하였다.

7월 4일 (1776) 대륙회의에서 독립선언서가 공포되었고, 250년 째 7월 2일이 아닌 이 날을 '독립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다.

7월 7일 (1898)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이 하와이 합병 결의안에 서명했다. 이후 1900년에 의회는 하와이를 미국의 정식 영토(incorporated territory)로 편입했으며, 하와이는 1959년 주로 승격되었다.

7월 10일 (1509)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 프랑스 누아용에서 태어났다.

7월 13일 (1787) 미국 의회가 '북서조례(Northwest Ordinance)'를 제정하여 오하이오강 북쪽 지역에 향후 3개에서 5개의 주를 신설하는 절차를 수립했다. 여기에는 종교의 자유,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 공교육 제공, 그리고 노예제 금지를 보장하는 권리장전이 포함되었다.

7월 14일 (1789) 프랑스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 일어났다.

7월 17일 (1948) 1948년 대한민국 제헌회의가 헌법을 공포했다. 3·1절, 8.15광복절, 10.3개천절, 10.9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로 기념된다.

7월 20일 (1969) 전 세계 시청자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아폴로 11호의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첫발을 내딛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7월 27일 (1953) 판문점에서 유엔군과 북한군 대표들의 정전협정에 서명하면서 6.25 전쟁이 사실상 휴전 국면에 들어갔다.

6월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ㅇ영	김ㅇ리	김ㅇ은	김ㅇ희	박ㅇ민	서ㅇ문	양ㅇ진	이ㅇ운	정ㅇ교	정ㅇ자	추ㅇ령
강ㅇ은	김ㅇ수	김ㅇ이	김ㅇ레	박ㅇ배	서ㅇ민	양ㅇ호	이ㅇ은	정ㅇ민	제ㅇ욱	충ㅇ교회
강ㅇ환	김ㅇ숙	김ㅇ종	김ㅇ림	박ㅇ수	서ㅇ호	오ㅇ철	이ㅇ은	정ㅇ슬	조ㅇ일	하ㅇ란
베드ㅇ센터	김ㅇ슥	김ㅇ주	나ㅇ원	박ㅇ정	석ㅇ현	원ㅇ웅	이ㅇ창	정ㅇ실	조ㅇ준	한ㅇ다
권ㅇ운	김ㅇ애	김ㅇ준	도ㅇ현	박ㅇ주	소ㅇ숨이비인후과	유ㅇ주	이ㅇ현	정ㅇ아	조ㅇ호	함ㅇ경
권ㅇ현	김ㅇ애	김ㅇ준	류ㅇ철	박ㅇ주	소ㅇ호	윤ㅇ선	이ㅇ희	정ㅇ용	만ㅇ학교	허ㅇ영
권ㅇ자	김ㅇ연	김ㅇ지	매ㅇ현	박ㅇ현	손ㅇ광	윤ㅇ옥	이ㅇ석	정ㅇ원	차ㅇ욱	허ㅇ은
기ㅇ교학술원	김ㅇ연	김ㅇ직	문ㅇ아	배ㅇ호	손ㅇ은	이ㅇ례	장ㅇ	정ㅇ하	최ㅇ든	무명의 후원자
기ㅇ희	김ㅇ원	김ㅇ진	민ㅇ환	변ㅇ연	송ㅇ원	이ㅇ빈	장ㅇ범	정ㅇ헌	최ㅇ실	
김ㅇ렬	김ㅇ은	김ㅇ현	박ㅇ기	변ㅇ현	안ㅇ문	이ㅇ섭	장ㅇ기	정ㅇ혜	최ㅇ희	